상진 스님 금구옥설 법문, 책으로 묶어내다

상진화상 문도회, '수봉상진 법어집' 봉정식

1월 19일 양주 청련사서 봉행돼
상진 스님 고희 맞아 법어집 편찬
운경 종정예하 등 1천 대중 운집
"부처님 바른 법 세상에 드러나길"

양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수봉상진 법어집'을 봉정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고희를 맞아 스님의 금구옥설(金口玉說) 법문이 책으로 묶어져 부처님께 봉정됐다.

상진화상 문도회(회장 효능 스님)는 1월 19일 양주 청련사에서 '〈수봉상진 법어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수봉상진 법어집〉은 2018년 상진화상 문도회 정기총회에서 법어집 편찬을 결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문도회는 매년 2~3차례 편찬회의를 개최하며 상진 스님의 법문 자료를 취합하고 편찬 방향을 정해 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초안이 만들어졌다. 2022년 심곡·벽산·효능 스님을 위원장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최종남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이성운 동방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편찬위원들은 스님의 법어 중 63개의 법문을 선정하고 △법의 향기 △대중법어 △BTN불교TV 특별법문 △언론 대담의 주제로 분류해 묶었다.

이날 상진문도회장 효능 스님은 문도스님들이 오랜 정성으로 묶어낸 〈수봉상진 법어집〉을 상진 스님에게 전했고, 상진 스님은 법어집을 부처님에게 봉정했다. 봉정 직후 상진 스님은 법어집 편찬위원장 심곡·벽산·효능 스님에게 공로패를, 편찬위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상진 스님은 봉정사를 통해 부처님 법이 바르게 전해져 불은(佛恩)에 보답하길 기원했다. 상진 스님은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即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是無量劫)이라는 법성게의 게송처럼 소납의 지내온 세월 또한 한량없는 오랜 세월과 찰나의 순간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면서 "매 순간마다 하심과 번뇌의 갈림길에서 수행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걸어왔던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납의 진심과 하심의 울림이 법어집을 통해 세간과 출세간에 널리 퍼져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법고(法鼓)가 돼 출가수행자로서 만분의 일이나마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상진 스님의 애종심과 업무 추진력을 치하했다. 운경 스님은 "상진 스님의 법어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책(법어집)을 볼 때 소리만 들어서는 안된다. 소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진실의 눈으로 부처님 법을 볼 수 있어야 깨닫고 평안함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 첫 졸업식… "불교 의례로 전법"

1월 21일 강서구 홍원사서 개최
상주권공 · 각배 · 영산과 이수한
화암 스님 등 4명에 졸업장 수여
동주 스님 "졸업 후에도 정진을"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1월 21일 강서구 홍원사에서 제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1회 졸업생 하경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졸업생 화암 스님(어산종장), 지성 스님.

경제어산전승보존회가 첫 졸업식을 열고 불교의례 전문 스님들을 배출했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1월 21일 서울 강서구 홍원사에서 제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조계종 어산어장)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 상주권공과·각배과·영산과를 모두 이수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4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은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 스님, 보천 스님과 지성 스님, 하경 스님이다.

동주 원명 스님은 훈화를 통해 "졸업생들은 오랜 시간 불교의식을 배웠다.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부단하게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도 정진하며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을 다짐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인사에 나선 화암 스님은 "가르침을 주신 동주 원명 스님께서는 저희 1회 졸업생들에게 '격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희 제자들은 그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졸업을 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배운 것을 더욱더 연습하고 연마하면서 나아가 상용 의식이나 전문 의식까지도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공불련, 2025년 신년법회…"불자회 재건에 주력"

1월 18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서
문광 스님 법어서 '중도' 강조



공불련이 을사년 신년법회를 봉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을사년에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별 불자회를 구성하고 재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 이하 공불련)가 1월 18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2025년 을사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공불련 조직 재건과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승윤 공불련 회장, 김진해 고문, 전충렬 고문, 이영하 수석부회장, 권근상 사무총장, 장차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32개 기관 불자회 회원과 가족 180여 명이 동참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격려사에서 "공무원불자 여러분들은 2025년 올 한 해, 반야의 지혜를 만들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많은 복을 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윤 공불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불자들이 새해를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서원한다"며 "부처님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운 형국을 헤쳐 나가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광 스님은 이어진 법어에서 '중도'를 강조했다. 스님은 "공무원 불자로서 국태민안에 기여하려면 '중도'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참선과 명상을 통해 무심(無心)의 세계로 들어가면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의 빛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달라"고 설했다.

김민재 기자

해외특별교구, 해외사찰 지원 위한 인재 파견

1월 16일, 미국 LA 달마사에
제1호 파견…국제포교 도움


천된 국제포교사들은 2년여의 임기 동안 해외 한국사찰에서 동포들의 신행심을 고취시키고 한국교포 2~3세대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진력한다.

인력난으로 포교활동에 난항을 겪는 해외 한국사찰을 위해 해외특별교구가 국제포교사회와 협업해 국제포교사 파견을 시작한다.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는 1월 16일 정경래 씨를 미국 LA 달마사(주지 금선 스님)의 제1호 파견 국제포교사로 발탁해 파견장을 수여했다.〈사진〉

한국사찰은 전 세계 80여 곳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사찰이 인력난으로 주석스님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하거나 불자들이 주말동안 행정 업무에 힘을 보태는 경우가 많아 포교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특별교구는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의 추천을 통한 인재 파견 사업을 시작했다. 추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해외에서 한국불교가 자리 잡기 위해 해외포교 프로그램 개발, 인재 양성 다각화 등도 진지하게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파견된 정 포교사는 국제포교사회에서 진행해온 '미국 횡단 포교 로드 투어'에 수차례 참여한 해외포교 전문가다. 이번 파견에서는 달마사의 어린이 불교학교 운영을 위한 한글학교, 포교활동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 포교사는 파견장을 수여받은 당일 미국으로 출발해 1월 18일부터 불교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사·봉은사 신년하례…"불자로 모범"

1월 22일 진우 스님 예방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직영사찰이자, 서울 대표 전법도량인 조계사·봉은사 대중에게 불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신년하례를 가졌다.〈사진〉

진우 스님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불자다운 신행과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불심이 옅어지면서 국민 간 화합이 어려워졌다. 불자들이 자비와 화쟁 등 불교 정신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국민에게 불심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선명상을 실천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과 발맞춰 전법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주지스님 이하 봉은사 사부대중이 강남 중심에 있는 가람을 잘 보존해줘 고맙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져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가져달라"고 덕담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 신도들과 잘 화합해 앞으로도 강남 전법 도량인 봉은사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한 종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도 "봉은사 신도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진우 스님, "군불교 발전 총력 기울일 것"

1월 22일 군종특별교구 신년하례서
법원 스님, "한마음으로 포교 매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를 맞아 군종특별교구의 신년하례를 받고 "군불교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군불교가 잘 되야 불교도 살아나고 출가자 독려도 된다"며 "앞으로도 군불교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위기상황은 불심(佛心), 화쟁·자비 정신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군포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군장병에게 불심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종특별교구가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교구장 법원 스님은 "종단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작년에 10만여 명이 수계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화답하며 "올해는 군종교구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된 해다. 2025년 한마음으로 불교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조계사·나눔봉사단, 취약계층에 설 선물

1월 22일, 조계사 산하기관 5곳
즉석밥 · 라면 · 김 등 700상자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은 1월 22일 경내 백송 앞마당에서 '2025 설맞이 따뜻한 동행 나눔누리전'을 가졌다.〈사진〉 전달식에서는 조계사 산하기관으로 운영 중인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주민소통센터 등 5곳에 십시일반 마련한 설 선물 700상자를 지원했다.

선물은 명절 동안 편리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즉석밥, 라면, 김, 사골 국물 등 식료품 키트로 구성됐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은 "올해는 모두가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경 행복나눔가피봉사단 상임이사는 "설을 맞아 지역 내 700가구에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면서 지금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내영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창작곡 59집 공개

불교학교 · 법회 등서 활용

찬불창작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59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음악은 CD, USB, 악보 등으로 제작돼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불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불교학교, 연수회, 강습회, 산사음악회 등에서 교재와 행사 음악으로 활용된다.

앨범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밝고 힘찬 곡 '그 길을 따르리라'(성원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로 시작된다. 이어 풍경소리 어린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한 '부처님 길'(김소영 작사/정유탁 작곡), '내 마음'(성원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 '눈'(최미선 작사/작곡) 등이 수록됐다. 일반 불자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설중매'(원철 스님 작사/서근영 작곡), '달빛 머무는 갈대밭'(최동호 작사/이종만 작곡), '아름다운 인연'(성원 스님 작사/강영화 작곡), '좋은 인연'(덕신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을 등 다채로운 곡도 포함됐다.

김내영 기자